

질병에서 완전 해방위해 예방의학 연구 활성화를

하 미 나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전공의/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3기〉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많은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몇 되지 않고 대부분의 질병도 이를 고친다기보다는 증상을 경감시켜 주거나 혹은 아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부터 대의, 중의, 소의니 하는 말들이 나온 듯 하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한 상태에서도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기에는 아직도 의학의 갈길이 멀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에 비하여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나는 예방의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의학의 영역에는 크게 두가지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질병의 원인이 선천적인 또는 유전학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한 영역으로 최근 의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또다른 분야는 환경론적 병인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이다. 즉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든지, 짠 음식을 먹는 민족에게서 위암의 발생율이 높다든지 하는 것 이외에도 대기 오염, 수질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것, 산업현장의 환경으로부터 폭로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환 등등에 대한 것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가지 분야가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유해환경에 폭로되더라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어떤 이는 질병에 걸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좀더 강한 저항력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질병은 이렇게 유전적인 성격과 환경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유전적인 측면은 과학으로서의 의학이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고, 환경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나 관리가 개입된다면 해결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문제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다른 근로자들에게서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임상의학에서도 '예방진료'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방적인 처방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위험 인자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의학은 위 두가지 의학의 분야에서 전자, 즉 유전자적인 병인론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다. 후자, 즉 환경론적 병인의 차원은 비의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후자는 의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마저 존재한다.

질병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인간이 의학을 발전시킨 근본적인 요구라 한다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예방하는 임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대의, 중의는 물론 소의도 아니다.

나는 우리사회가 질병예방의 중요성을 좀 더 심각히 깨닫고 예방의학에 관련된 여러 연구를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물론 몇년 전에 비하면 훨씬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인력뿐 아니라 재원도 많이 부족한 것이 예방의학의 현실이다. 